

첨단분야 정원배정 모두 탈락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교육부가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27일 발표 결과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2월 3일 지원한 5개 첨단분야 정원배정에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다만 첨단분야 정원조정에는 포함돼 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길은 열어둔 상태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첨단분야 21개 중 ▲반도체 ▲인공지능 ▲SW·통신 ▲에너지 신소재 ▲미래차·로봇·스마트선박 ▲바이오 분야 등 총 6개 첨단분야가 최종 심사분야로 추려졌다. 이는 분야별 유사성과 신청 규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분야별 6명씩 총 36명의 평가위원이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원배정 대상 학과를 선정했다.

첨단분야 순증 신청 인원은 총 7,041명 218개 학과로 수도권 21개 대학에서 5,734명, 비수도권 12개 대학에서 1,307명 신청했다. 첨단학과 신증설 심사기준은 ▲특성화·지역산업·관련 학과 간 연계 ▲교육과정 개편 ▲교원확보 우수성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 여건이다. 이외에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간 연계 융합 노력 등 대학 의지도 함께 고려됐다.

2024학년도 일반대학 첨단분야 정원배정 결과

분야	대학	배정
반도체	서울대	56
	성균관대	56
	고려대	56
	이화여대	30
미래차 · 로봇 · 스마트선박	세종대	94
	동국대	45
바이오	서울대	112
	가천대	50

우리학교 2024학년도 첨단분야 정원조정 활용

모집 단위	2024학년도 입학정원
반도체	30

우리학교는 첨단분야 정원배정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정원조정 활용으로 2024학년도에 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한다.

선정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은 19개 학과 817명 증원으로 신청 인원 대비 14.2%, 비수도권은 31개 학과 1,012명으로 신청 인원 대비 77.4% 증원됐다. 이어 수도권 10개교 중 2개교, 비수도권 12개교 중 10개교가 국공립에 해당했다. 서울대는 신청 인원 330여 명 중 218명이 선정돼 신청 인원의 절반이 넘는 비율을 확보했다.

비수도권 풀림 현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수도권, 지방대 간 균형 유지와 단기 간 대규모 증원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원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했다. 이에 수도권 대학은 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상위 3~4개 학과만 증원 대상으

로 선정됐다.

6개의 최종 심사분야 중 우리학교가 지원한 분야는 ▲반도체 ▲미래차·로봇·스마트선박 ▲바이오 분야다. 그중 반도체 분야는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이화여대 4곳의 수도권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이어 로봇 분야는 ▲세종대 ▲동국대가, 바이오 분야는 ▲서울대와 ▲가천대가 선정됐다.

우리학교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획조정처(기조처)는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경쟁이 치열했고, 77.4%를 할애받은 비수도권 대학은 대부분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전자정보대학 또한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분석 중이다”며 “5월 내에 분석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전했다.

우리학교는 첨단분야 신증설에 선정되진 않았지만, 결원을 활용해 반도체공학과를 신설한다. 현재 학생정원조정을 통해 총 30명을 배정한 상황이다. 오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 반도체공학과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의 첨단분야 신증설 지원 정책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는 분야별로 2027년까지 2,000명 정원 증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조처는 “2025학년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타대학과 비교하고 준비하겠다”며 “나머지 순증 인원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학교가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1면에서 이어짐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자, 의뢰자까지도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복제 파일을 공유하거나, 교재 복사 및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 역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교재 불법복제 PDF 거래는 우리신문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문제다.(불법 복제 교재 거래 여전/대학주보 제1697호(2023.03.06.), 교재 복제물 판매·구매 처벌 대상/대학주보 제1638호(2022.03.28.)) 출판문화원 역시 온라인 익명 예브리타임(에타)과 홈페이지를 통해 PDF 유통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수차례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교재 불법복제 PDF 거래는 온라인을 통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월 4일에도 에타에는 “인간의 가치탐색 교재 PDF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출판문화원은 “그동안 저작권 위반 사례가 발생해도 우리학교 학생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보다 주의 및 경고 등 가벼운 조치를 취해 왔다”며 “만약 이후에도 불법복제 거래가 지속돼 적발된다면 공적 기관의 적법한 조치를 통해 출판물 저작권을 보호할 수밖에 없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복제물 유통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출판문화원은 오는 2024년부터 교양교재 전자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출판문화원은 “교재 내에 수록된 어문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복제를 할 수 없는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하기 위해 E-BOOK 유통사 및 인터넷 서점과 협의 중이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Khreative U+
GREP Graduate Research & Education Portal

The Brain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정보 및
연구검증 시스템 오픈



https://brain.khu.ac.kr

• 연구논문, 학술대회 참가 정보, 연구활동 기록 및 개인 프로필 및 취/창업 홍보를 위한 종합시스템

• 학문후속세대 학술연구정보 및 연구검증 시스템

01

지도교수 선정 시
The Brain 가입 확인 증빙
제출 의무사항 실시

02

대학원혁신지원사업 참여
및 희망 대학원생은
의무 가입

03

연구논문의 경우,
반드시 검증 후 업로드
실시

04

Manual 제공 이후
지속적인 개선과 업그레이드
예정

The Brain

경희대학교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사업단
문의 : Tel. 02-961-9105~6 E-mail. innogradu@khu.ac.kr